

Newsletter

Global City of Saemangem, Creating Tomorrow

창간호

Vol.1 / 28 January 2011

◎ 주요소식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를 관광 명소로 개발 시동

- ▶ 신시도 휴게시설,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민간투자유치와 공공부문 기본계획 수립 추진



새만금에 신개념의 랜드마크가 조성

‘새만금 10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한다!

- ▶ 새만금관광단지, 세계 최장 방조제 + 천혜의 자연경관 품은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 ▶ 첫 사업지역(Gateway), 1호 방조제 인근 1km²(30만평)
- ▶ Gateway개발되면,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 기대



새만금 신항만 본격 개발

- ▶ 2011년 착공 대비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조사용역 발주

방수제 조기착공으로 새만금사업 성과 가시화

- ▶ '10년 방수제 7개 공구(49km) 공사 착공, '11년 3개 공구(16km) 착공 추진 계획



●●● 창간사



희망찬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해를 맞아 번영과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국내외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터전으로서 새만금 사업을 널리 알리고자 뉴스를레터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장차 새만금의 주인공이 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새만금 개발 계획과 투자환경, 분양 및 입주시기, 사업자 공모에 이르기까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 할 것입니다. 국·영문판으로 제작되어 매월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은 지난해 4월, 19년간의 노력으로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오는 2월말 발표될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401km²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15억이라는 세계 거대 소비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바다를 메우고 희망을 세워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만금을 채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Creating tomorrow”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새만금 주요소식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를 관광명소로 개발 시동

◆ 신시도 휴게시설,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민간투자유치와 공공부문 기본계획수립 추진

- 순수 우리기술과 노력으로 건설한 세계 최장(33.9km)의 새만금 방조제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추진하는 “방조제 명소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축조시 발생한 다기능부지를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위탁시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주체를 맡고 있다.

– 휴게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과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중이다.

- 지금까지 명소화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780억원,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3조 4,550억원으로 총 3조 5,330억원에 이른다.

– 신시도 휴게시설(사업자: (주)새만금)은 약 6ha 면적에 전망형 복합휴게소와 전망타워, 열기구,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은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의 방조제 다기능부지 195ha를 숙박·해양·레저·휴양 등 관광 인프라가 집적된 사계절 해양형 복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주)새만금 메가리조트 컨소시엄(가칭))를 선정, 3월까지 협약체결을 계획 중이다.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 조감도



- ▶ '11. 2월 기본계획 새만금위원회 심의 (예정)
- ▶ '11. 6월 실시계획 승인, '11. 6월 공사착공

-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은 그 만큼 새만금이 가지는 상징성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1,010억원을 확보하고, 명소화사업의 공공부문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조감도



- ▶ '11. 3월 사업협약체결 및 기본계획수립 추진
- ▶ '11. 7월 사업시행법인 설립

새만금에 신개념의 랜드마크가 조성

-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의 미래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Ariul”에 부합하는 신개념의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 이번 용역을 통해 신개념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및 국제공모방법, 공모가이드 라인 등이 제시되었다.

- 새만금 랜드마크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내면적 가치를 담아 조성되며, 세계 최장 방조제(33.9km)와 함께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랜드마크 예시 사진



‘새만금 1000만 관광시대’를 준비

- ◆ 새만금관광단지, 세계 최장 방조제+천혜의 자연경관 품은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
- ◆ 첫 사업지역(Gateway), 1호 방조제 인근 1km²(30만평) 개발중
- ◆ Gateway개발되면,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 기대

■ 새만금경제청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인접지역에 새만금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숙박시설, 마리나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새만금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새만금관광단지는 세계최장의 새만금방조제와 6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변산국립공원 등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수변관광 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새만금 관광단지 사업개요

사업면적	9.9km ²
사업기간	2008~2019년
사업비	9,518억원 (국비 636 도비 1,012 기타 7,870)
내 용	골프리조트, 테마파크, 문화·공연시설, 숙박·상업시설 등

■ 우선, 차별화된 관광단지 및 전체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이 확보된 실질적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일괄 민간 사업자 공모를 1분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현재 새만금관광단지 내에 선도사업으로 1km²의 면적을 매립 중인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젝트는 매립공정율이 35%를 달성 중이며 금년 9월까지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 매립이 완료된 게이트웨이 용지에는 단기적으로는 방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임시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테마파크, 마리나빌리지, 펜션형 빌라 등을 조성함으로써 새만금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새만금 신항만 본격 개발

- ◆ 2011년 착공 대비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조사용역 발주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병주)은 '10. 12. 30일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축조공사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였다.
-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섬식의 항만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5천5백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8km, 부두 4.1km, 부지 488만m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신항만 건설의 첫 단계인 방파제 축조공사를 위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조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12월 방파제축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신항만을 건설할 예정이다.
-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조성을 위해 약 2,6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부두를 조성할 계획이다. 물류·레저·관광 기능을 갖춘 서해안시대 거점항으로 개발될 새만금 신항만은 국내외 SOC 투자가의 좋은 투자처가 될 전망이다.



방수제 조기착공으로 새만금사업 성과 가시화

◆ '10년 방수제 7개 공구(49km) 공사 착공, '11년 3개 공구(16km) 착공 추진 계획

■ 정부는 새만금 사업성과의 조기가시화와 강력한 개발동력 확보를 위하여 “5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지 방수제 조기착공”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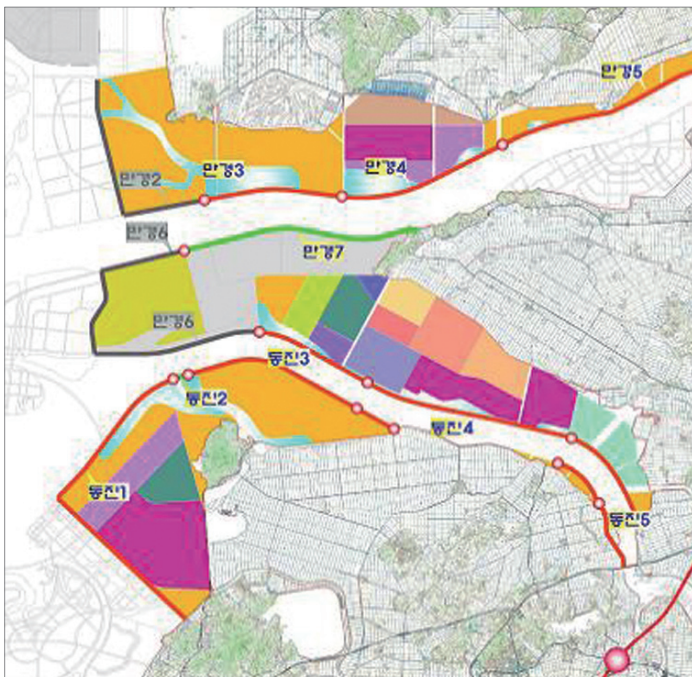
－ 방수제는 새만금내 농업용지(8,570ha)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제방으로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0,371억원을 투입하여 축조할 계획이다.

■ 방수제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7개공구(49km)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0년도 7~9월 중에 단계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였다.

－ 또한, 입찰공고시 지역업체 참여를 30%이상 권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토록 하였다.

■ 2011년에는 지난해 착공한 7개 공구의 방수제·승수로의 준설 성토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미착공된 잔여 3개 공구(16km)를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 '11년 발주할 방수제 3개 공구(16km)는 지난해 11월 축조기로 결정된 신재생에너지 용지구간(만경6공구)과 기타 공사입찰 2개공구(만경7공구·동진2공구)로 연내 착공예정이다.



About 새만금

“새만금”, 이름 탄생의 비밀을 밝힌다.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만금”앞에 “새”자를 붙여서 탄생한 “새만금”

■ “새만금” 명칭 탄생에는 2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로는 예로부터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금만평야」 혹은 「김만평야」로 일컬어 왔으며 「김만」보다는 「금만」을 더 많이 사용하여 이를 근거로 「금만」을 「만금」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운 땅이 생기기 때문에 새롭다는 뜻의 「새」자를 덧붙여 「새만금」으로 명칭을 붙이면서 탄생했다는 설이다.

둘째로는 조선시대 동양 최고의 풍수지리서인 금낭경(錦囊經)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금낭경에서 만금(萬金)은 ‘돈이 많다’는 뜻과 황금(金)이 가장 많은(萬) 최고의 길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때 “만금”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 되었다고 한다.



주요 행사 일정

제6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국무총리실)

- 일 시 : 2011. 2. 16(수)
- 장 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
- 심의안건 :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 (MP) 수립(안)

고군산마리나 투자유치 활동 (SGFEZ)

- 일 시 : 2011. 2. 28~3. 4
- 장 소 : 호주(골드코스트, 멜버른)
- 행사내용 : 마리아항만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및 1:1투자상담
 - － 마리아항(신시) : 면적 200천㎡, 200척 규모, 사업비 794억원

※ 매립토지보상비 250, 항만조성비 794, 건축비 600, 일부 국비 지원